

「ICT 성장력 강화 플랜」을 통해 본 일본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동향

산업정책연구팀 | 장선희 (sunny@nipa.kr)



일본은 그동안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경제와 환경을 양립시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일련의 정책추진을 통하여 2010년대 초반이 되면 일본 전국의 브로드밴드 기반정비,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이행을 완료하여 「모든 것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실현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하여 「종이로부터 전자로」,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모두가 협동하는 쪽으로」 등 경제사회의 기본 원칙에 불연속적이지만 발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이로부터 생활·산업·지역의 변화를 유도하여 ICT에 의한 성장력 강화를 최대한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u-Japan 정책에 기초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ICT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용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정부, 의료·교육, 중소기업 경영 등 민관 모든 분야에 있어서 ICT 활용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위법·유해 정보의 사회 문제화 등 ICT 이용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ICT 기반을 살려 인적자원이나 에너지자원의 제약 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일본은 지상 디지털 방송의 완전 이행, 디지털 격차의 해소 등 「완전 디지털 원년」의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ICT 기반정비를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지방정부가 솔선해 ICT를 통한 행정 효율화·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의료·교육 등 공적 분야나 일차산업·지역산업을 포함한 폭넓은 산업·조직에 걸쳐 철저한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 혁신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ICT 성장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총무성에서는 2008년 2월 「ICT 성장력 간담회」를 설치해 ICT에 의한 성장력 강화를 향한 정책검토를 시작했다. 그 검토결과를 근거로 「글로벌 성장력과 지역 성장력」, 「ICT 산업과 ICT 이용 산업」을 2가지 축으로 성장력 강화가 실제로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정리해 ICT와 성장력을 연결하는 경로를 집중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ICT 성장력 강화 플랜」(2008. 05)을 발표했다. 이 플랜을 통하여 종래의 「ICT 인프라 정비·ICT 산업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ICT 정책으로부터 「전자 사회 구축에 의하여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민관 제휴의 대규모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의 전개를 진행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연결력」을 일본의 성장력으로 바꾸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성에서는 이 플랜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해 「완전 디지털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2011년까지 국제 전개 산업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ICT와의 심화된 융합을 실현해 생산성 향상, 신규 서비스·산업의 창조, 지역의 집적 효과 발휘, 지역 커뮤니티 확보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플랜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역 성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1) 민관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디지털 적응력의 향상

ICT 활용을 통해 환경과 양립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나라 전체·지방의 행정이나 의료·노동·교육 등 공적 분야, 중소기업·지역산업 등 ICT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민간 분야에 대

한 규제·제도 총점검을 실시하여 ICT 활용을 통해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설정된 ICT 활용 중점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국가 행정 서비스 혁신을 통한 온라인 이용 확대 도모
- 지방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지방 공공단체의 표준사양 시스템 도입, 시스템 공동이용 추진, ASP·SaaS 등의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실시하여 주민 편리성 향상을 도모
- 지역 산업·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전업종에 걸쳐 ICT에 의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추진하고, 업종별로는 원격의료, 일차산업, 중소기업, 교육, 관광, 재택근무 등 각 지역별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에서 ICT 활용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최상의 실천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원 실시

(2)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창출

새로운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첫 번째, 완전 디지털 원년 실행을 위한 대책 추진이다. 구체적 추진정책은 아래와 같다.

-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경제적 약자에 디지털 방송 수신 설비 구입지원
 -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
 - 국민 상담 대응 체계 대폭 확충 지원 등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추진
- 디지털 WiMax 추진
 - 고속 무선 브로드밴드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 WiMax에 대해 주파수를 할당해 연내 서비스실현

두 번째 정책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

- 지상 디지털 방송실현에 의해 이용 가능해지는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실현
- 통신·방송의 융합·제휴 촉진을 통해 IPTV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전개

- 「신경쟁축진프로그램 2010」에 근거한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축진책 전개 등을 추진한다.
 ※「신경쟁축진프로그램 2010」: 2006년 총무성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거대 통신기업의 설비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통신망 개방, FTTH 저가 이용 등 실시

마지막으로 「안심을 실현하는 기본범위의 정비, 「민간 활동 촉진, 「부모와 자식의 ICT 미디어 능력 향상 지원」의 3가지 정책을 기본으로 종합적 위법·유해 정보대책을 추진(「안심넷 만들기」축진 프로그램)한다.

2. 글로벌 성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1) ICT 연결력에 의한 산업변혁

글로벌 성장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로 연결되어 있는 ICT 연결력을 통해 산업변혁을 시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의 첫 번째는 신사업 영역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 창조적 산업(콘텐츠 주변분야)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반을 살리는 플랫폼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두 번째 정책은 환경에 대한 전략으로 ICT에 의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CO₂ 배출 삭감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강점 분야」와 ICT와의 융합(자동차와 ITS, 주택과 정보가전, 로봇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의 산업분야와 ICT와의 융합시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는 일본 전체에서 실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일본내의 지적자산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문명개화 프로젝트(가칭)」를 실시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국제 전개 하는 종합 프로젝트(일본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람·물건·비용을 유기적으로 조합한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활동 후원을 위한 「특구」도입 정책으로 콘텐츠 유통 등의 신규사업 창출을 촉진하는 「사이버특구(가칭)」를 검토하고, 일본의 강점인 유비쿼터스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유비쿼터스 특구」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2)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글로벌 성장력 강화를 위해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2007. 05)」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첫 번째, 중점 기술 분야의 국제 전개 추진을 위해 디지털 방송·차세대 IP 네트워크·무선의 3분야에서 일본 기술의 국제 전개를 추진하고,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 추진을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신세대 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유비쿼터스·플랫폼, 네트워크 로봇, 3차원 영상 등 중점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두 번째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ICT 국제 표준화 전략맵」, 「ICT 특허권 맵」, 「ICT 국제 표준화 추진 가이드라인」, 「아시아 지역 제휴」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재구축하고, 「ICT 표준화·지재 센터」의 설치 및 「ICT 표준화 전문가」 창설 등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 표준화 체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ICT 인재육성의 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센터 기능구축 등을 통하여 고도 ICT 인재육성 추진체재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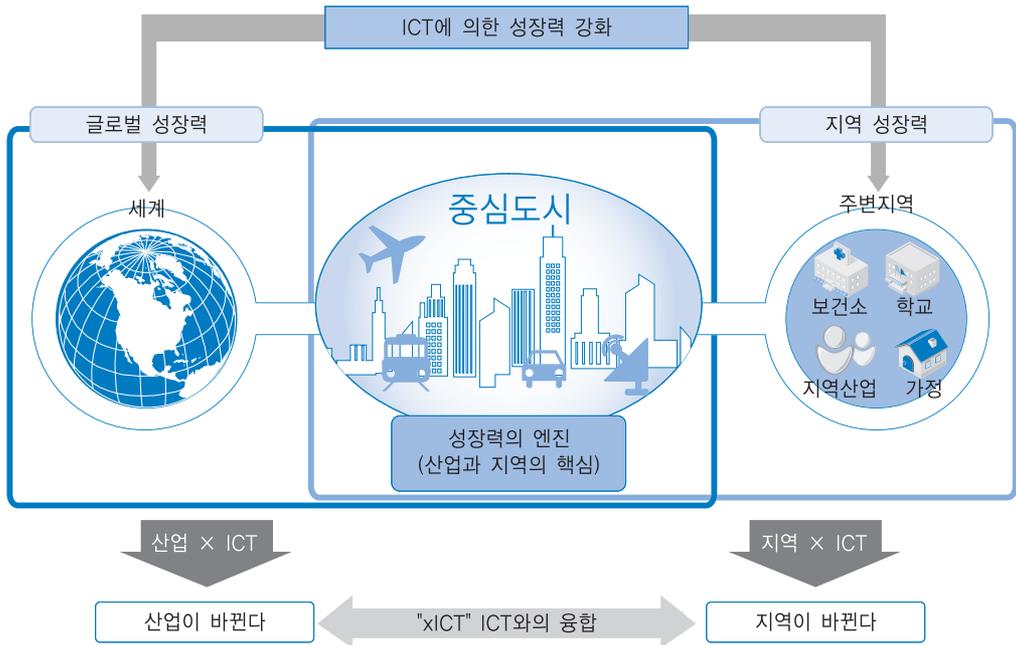
3. 글로벌(Global+Local) 정보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

세계(Global)와 지역(Local)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ICT 정책에 대해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비쿼터스 전략을 내거는 지역(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자치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상의 내용이 2008년 총무성에서 발표한 「ICT 성장력 강화 플랜」의 주요 추진전략이다. 이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ICT에 의한 성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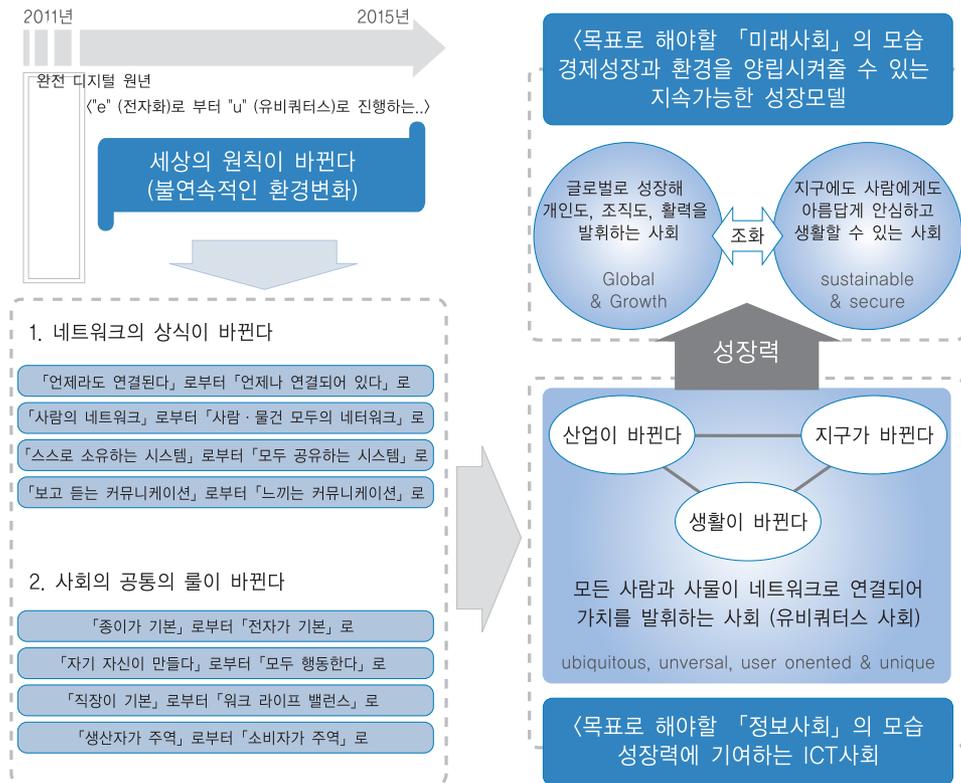
-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력」과 「지역 성장력」 모두 필요
- 중심도시의 ICT 활용은 지적생산성을 높여 양방향 성장력의 동력이 됨
- 국제전개 산업과 ICT가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글로벌 성장력을 높임
-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ICT와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지역성장력을 높임



* 출처 : ICT 성장력 강화 플랜 (2008.5 일본 총무성)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일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보사회의 장래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정보사회의 장래상]



* 출처 : ICT 성장력 강화 플랜 (2008.5 일본 총무성)

이 <ICT 성장력 강화 플랜>을 통해 일본은 ICT 산업자체의 육성과 더불어 ICT 활용을 통한 기존산업의 혁신 및 새로운 시장창출을 이루어 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ICT에 의한 생산력 향상, 신사업 영역의 창출, 기존산업의 ICT와의 융합 등을 통하여 일본 내의 성장력을 강화하고,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ICT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성장을 지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의 실시는 우리의 관련 정책수립에도 타산지

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실효를 거둔다면 국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글로벌 성장을 이루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실업문제나 경기 침체 등의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ICT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비영리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